

종합·해설

安風·아권연대·체포동의안 '민주 3종고'

안철수 바람에 경선 이벤트 효과 떨어져 이석기 등 제명 실패로 아권연대 빨간불 박지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진퇴양난

민주통합당이 대선을 앞두고 '3종고'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당내 경선 흥행을 통해 지지 세 확산에 나서고 있지만 '안철수 바람'(안풍·安風)이 거세게 불면서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예비경선과 본경선 등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지지율을 올리는 '컨벤션 효과'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최근 책 출간,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으로 사실상 정치행보에 나선 이후 민주당 경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안 원장의 지지도는 급등하

고 있는 반면,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은 정체되거나 줄줄이 하락하고 있어 경선의 이벤트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과의 부상 이후, 후보단일화 과정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팽배되면서 민주당 경선이 '마이너리그'로 전락했다는 비판론마저 나온다. 이런 와중에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안 처리에 실패함으로써 아권연대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은 안 원장과의 후보단일화와 함께 통합진보당과의 아권연대를 대선 승리를 위한 회심의 카드로 여겼지만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아권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의 아권연대를 염두에 두고 4·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내의 극심한 반대까지 무릅쓰고 통합진보당에 일정 부분 지역구를 양보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별다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오히려 아권연대의 역풍마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진보당 내부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서 아권연대의 의미가 크게 퇴색된 상황"이라며 "특히, 통합진보당 사태가 대선 전까지 해결될 기미가 없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에서 급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도 고민스러운 점이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다음달 2일 본회의

에 상정해 가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표적수사,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체포동의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안건이 상정될 경우 가결이든, 부결이든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당장,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대선에 5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원내 전략을 진두지휘해야 할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공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부결이 된다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에서 보듯 '기득권 지키기'라는 민심의 거센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각종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현재의 상황에서 좌고우면한다면 더욱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외면하는 강기갑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가 27일 비례대표 부정선거 관련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 부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국회 정문으로 들어갈 때 기권으로 제명을 부결시킨 김재연 의원이 강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연합뉴스

통진당 공황상태...당원 1150명 탈당

이석기·김재연 제명안 부결 강기갑 "진보정치 길 잃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안 부결 이후 통합진보당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잇따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였다. 지난 27일 하루에만 1000명 이상의 당원이 탈당 의사를 표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당의 존립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모양새다. 강기갑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진보정치가 갈 길을 잃었다. 성찰과 반

성을 기대했던 국민과 당원에게 또다시 죄를 짓고 말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당원의 뜻과 국민의 바람을 거스르는 결정이 이뤄져 죄송하다"고 밝혔다. 당 운영이 전면 마비되면서 당의 진로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상황에 처했다. 구당권과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지뢰밭이 산적해 있어 갖가지 현안을 놓고 거친 파열음을 낼 공산이 크다. 첫 번째 고비는 중앙위원회다. 신·구당권과는 지난 23일 중앙위원회를 열었으나 당직 인선과 비례대표 경선을 부정·부실로 판단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폐기 안건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하다 결국 안건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중앙위 의장인 강기갑 대표는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으나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이날 오후 1시 현재 무려 1150명(탈당 800명·당비납부 중단 350명)의 당원이 탈당 의사를 표해 당의 존립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 현재 추세대로 탈당 러시가 이어질 경우 분당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분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탈당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

오늘 체포영장 ... 與野 '박지원 체포동의안' 전문 고조

새누리, 표결 대비 인원 점점 착수 민주당, 필리버스터 발동 '朴' 지원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전문이 갈고름되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3차례 소환에 불응한 박 원내대표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는 29일 시나리오별 전략을 마련하고 민심의 향배를 파악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설령 표결이 실시돼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현재로서는 체포동의안이 8월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 다음 날 표결에 부처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8월1일 오후 2시 본회의 직전까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일적 지연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표결이 현실화되면 민주당의 경우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과반에 육박하는 의석(149석)을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따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비, 소속 의원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린 데 이어 인원 점검에 착수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의석이 141석이 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이탈표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반대토론만 한 뒤 표결 시 퇴장하거나 야에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통합진보당의 협조를 얻어 '재적 과반'을 채우지 않음으로써 표결 불성립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진통일당 및 무소속과의 연대로 '재적 과반'을 넘는 158석까지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발동을 유력

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19대 국회에서 첫 필리버스터가 이뤄진다. 국회는 지난 5월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토론에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즉 128석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자력으로 필리버스터 발동이 가능하지만 149석의 새누리당은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킬 수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자체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헌국회 이후 국회 관습법상 체포동의안 등 인사 관련 안건에 대해 토론이 이뤄진 적이 한 차례도 없었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2대 이후 체포동의안 36건 중 24건이 '유죄'

지난 1985년 12대 국회 이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36건 가운데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67%(2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선 의원이 법무부·국회사무처에게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국회 제출 체포동의안 현황 및 수사 경과'에 따르면 제12대 국회 이후 최근 부결된 '정두언 체포동의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36건이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안은 5건이었으며, 부결된 경우는 10건이었다. 임기만료 등으로 자동 폐기된 체포안은 19건이었으며, 나머지 2건은 철회됐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던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를 보면 모두 24건이 유죄가 확정됐다. 무죄가 확정된 것은 7건이었으며, 공소기각이 3건이었다. 재판과 수사 중인 사례는 무소속 박주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각각 1건씩이었다. 체포안이 부결된 10건 중에서 추후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모두 8건이었다. 반면, 체포안이 가결된 5건 중에서 유죄 확정은 3건이었고, 1건은 공소기각 결정, 1건은 2심 재판 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

“박근혜 사생활 의혹제기 김현철에 법적대응”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이상일 대변인

2012년 7월호에 게재한 김현철씨 인터뷰와 관련해 오늘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월간중앙도 인정했듯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박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김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김씨처럼 음해를 하는 이들이 있다면 역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씨는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박 전 위원장의 사생활에 불투명한 부분이 너무 많아 본문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박 전 대표 측은 전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경매투자

지분물건 등 특수물건 NPL 부실채권

- 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 특수물건과 NPL 부실채권만 취급
- 주1회 2시간 3개월 스테디
- 교육비 / 임차활동비등 회비있음
- 수료중 단독 / 공동투자 가능
- 수료후 수료증 / 평생 무료상담 혜택

무료 공개 강의

제목 : 특수물건 / NPL물건 투자등등
일시 : 2012년 8월8일(수) PM 8시
인원 : 선착순 10명(상담후 결정)
기타 : 교재무료제공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